

# 아리셀 참사 발생 49일, 여전히 떠나보내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 어떤것도 밝혀지지 않았다"

✎ 조연주 기자 | ⓒ 승인 2024.08.11 16:40

##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49재 현장스케치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 가족, 친지, 시민들 모여 희생자 49재 치러. 유족 "참사 현장에 오늘로 세 번째 왔습니다. 올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가 발생한 지 49일, 출근한 노동자 23명이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한 지 49일이 11일 오전 11시 화성시 아리셀 공장 앞에서 49재가 치러졌다.

49재는 고인이 이승에서의 미련을 내려놓고, 저승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가뵈어 하라는 의미다. 그러나 이날 49재에서 가족들과 시민들은 고인을 떠나보내지 못했다. 참사가 왜 발생했는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아직도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의 주관으로 진행된 의례가 진행됐다. 유족 의례는 엄숙하지만 49재까지 오는 동안 아무런 것도 해결되지 않은 현실 앞에 선 피해자 가족들의 비통함이 그대로 드러났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 가족, 친지, 시민들 모여 희생자 49재 치러. 유족 "참사 현장에 오늘로 세 번째 왔습니다. 올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 가족, 친지, 시민들 모여 희생자 49재 치러. 유족 "참사 현장에 오늘로 세 번째 왔습니다. 올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

참사 이후 유족들이 화재 현장을 찾은 것은 세 번째다. 유족들은 가져온 소주를 화재 현장에 뿌렸다. 가족들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연상시키는 현장을 찾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진상규명을 위해 용기를 내어 찾았다고 대책위는 설명했다.

30도가 넘는 땀별에서, 땀보다 눈물을 더 흘리면서 오열했다. '힘내시라'는 발언자들의 위로에 유족들은 연신 '감사합니다, 힘내겠습니다'라고 답변하며 울부짖었다.

빙홍차, 꺾바로우, 튀김만두, 용과……. 유족들은 평소 희생자가 좋아하던 음식을 단에 올리는 과정에서 애써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다. 갈라지는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다. 보고싶다고, 사랑한다고, 가지말라고, 이제 꿈에도 나와주지 않느냐고, 유족들은 가슴을 치며 다시한번 희생자를 떠나보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가 발생한 지 49일, 출근한 노동자 23명이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한 지 49일이 11일 오전 11시 화성시 아리셀 공장 앞에서 49재가 치러졌다. 사진=조연주

의례에 앞서 대책위 공동대표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여는 발언으로 "49재는 고인이 이생에서의 미련의 다 내려놓고, 고인이 저생에서 새로운 시작을 가벼이 하라는 의미다. 그러나 이자리에 모인 우리는 떠나간 이의 명복을 빌기도, 남아있는 우리의 삶을 다시 열어가기도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서 "어떻게 우리의 가족이 희생됐는가, 이 단순한 물음에 49일이 지나도록 대답이 없다"며 애통해 했다.

양 위원장은 "국무총리도, 도지사도, 국회의원들도 약속하지 않았던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원인을 찾고 근본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이기에 우리는 아직도 진실을 찾아 거리를 헤매야 한단 말인가"라며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다짐한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 다시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희생자 가족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피해자가족 협의회 김태운 공동대표는 "이 참사 현장에 오늘로 세 번째 왔다. 올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 그런데 49일이 되도록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우리는 매일매일 고통 속에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아프고 힘들지만 이 악물고 싸우고 있다. 이 건물 안에서 1000도가 넘는 화마 속에서 고통스러워했을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며 너무나도 억울하고 치가 떨린다"며 통곡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 가족, 친지, 시민들 모여 희생자 49재 치러. 유족 "참사 현장에 오늘로 세 번째 왔습니다. 올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

이후 김 공동대표는 "참사의 현장을 담은 CCTV를 통해 드러난 박순관의 책임,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과 함께 끊임없이 피해자 가족들을 상대로 말도 안 되는 합의안을 들이밀려 개별 합의만 시도하고 있다.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만 하는 박순관, 증거와 정황을 왜곡하고 훼손하는 박순관을 왜 구속하지 않는가"라며 강하게 정부 당국을 비판하고 "교섭의 재개와 진상규명을 위해 우선 박순관을 구속해서 수사해야 한다"라고 유가족들의 입장을 밝혔다.

연대발언에 나선 재난참사피해자연대 황옥철 님은 "최근 일어난 광주학동참사, 오송지하차도참사, 화성아리셀참사 모두 관공서의 관리감시 소홀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한 뒤 "특히 "민원인 몇 명이 귀찮게 한다고 해서 유가족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촉구한다. 관청에서 유가족을 위해 지원하는 모든 재정은 차후에 모두 가해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합니다. 저희 광주학동참사도 3년이 지난 지금 추모식때 쓰인 물한병까지도 모두 가해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했다"라는 경험을 이야기 하고 자치단체의 적극적 지원활동을 촉구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 가족, 친지, 시민들 모여 희생자 49재 치러. 유족 "참사 현장에 오늘로 세 번째 왔습니다. 올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김미숙님은 "한마디 이별의 준비도 없이 떠나보내야 하는 악몽 같은 현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놀라고 정신이 없었는지 먼저 겪은 유족으로서 어떻게 위로에 말을 건넬지 착잡한 심정이다"라며 연대의 마음을 전했다.

더해 "지금까지 잘 싸웠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찾기를 바란다. 더 이상 누구도 함부로 죽음을 농락하지 못하도록 올바른 길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한 뒤 "여러분들이 부당함을 잘 싸워 바뀌면 결국 동료 이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생명 가치를 높여주고 안전해지게 될 것"이라며 발언을 마쳤다.

49재를 마친 희생자 가족과 참가자들은 어떤 상황이 닥쳐도 끝까지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이를 위해 박순관 대표의 구속수사와 교섭 재개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참사 발생 55일이 되는 17일에는 55대의 아리셀 희망버스가 아리셀 공장앞으로 모일 예정이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가 발생한 지 49일, 출근한 노동자 23명이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한 지 49일이 11일 오전 11시 화성시 아리셀 공장 앞에서 49재가 치러졌다. 사진=조연주



조연주 기자 [nojojogirl@gmail.com](mailto:nojojogirl@gmail.com)